

잡아함 109. 모단경

날짜: 8월 8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38>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비유하면 어떤 못이 있는데 주위가 50요자나요, 깊이도 또한 그와 같은데 거기에 물이 가득찬 것과 같다. 다시 어떤 사부가 털이나 풀이나 혹은 손톱으로 그 물을 뜯다고 하면 여러 비구들이여,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사부의 뜯은 물이 많으냐, 못 물이 많으냐.”

비구들은 부처님께 여쭙었다.

“그 사부가 털이나 풀이나 손톱으로 뜯은 물은 적나이다. 적다고 말할 것도 없사오며, 그 못 물이 매우 많기는 백천만 배나 되어 견줄 수도 없나이다.”

“그와 같이 여러 비구들이여, 진리를 본 사람이 끊은 온갖 괴로움도 그 못 물과 같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도 영원히 다시 나지 않느니라.”

그 때에 세존께서는 이 법을 말씀하신 뒤 방으로 들어가 좌선하시었다. 때에 존자 사리불은 대중 가운데 앉아 있다가 세존께서 방으로 들어가신 뒤에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세존께서 오늘 못을 비유하여 하신 말씀은 일찍 들은 일이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거룩한 제자로서 진리를 자세히 보면 완전히 평등한 지혜를 얻기 때문이다. 혹 어떤 범부는 샛된 소견인 신견(身見)·근본신견(根本身見)·집신견(集身見)·생신견(生身見)이 일어나, 이른바 근심하고 기가 죽거나 기뻐하고 아끼어 <나>를 말하고 중생을 말하며 기특한 일과 자랑스러운 일을 말하더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샛된 소견을 모두 없애버리고, 그 근본을 끊기를 마치 타알라 나무를 꺾는 것과 같이 하면 미래에 다시 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 비구들이여, 이른바 진리를 본 거룩한 제자는 위의 여러 가지 사특한

소견을 끊어 미래에 영원히 다시 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물질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는 물질 안에 있고 물질은 <나> 안에 있다’고 보며,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는 그것들 안에 있고 그것들은 <나> 안에 있다’고 본다.

어떻게 물질은 곧 <나>라고 보는가. 일체의 땅을 감각 기관으로 바로 받아 관찰한 뒤에는 ‘땅은 곧 <나>요, <나>는 곧 땅이다. <나>와 땅은 오직 하나요 둘이 없으며, 다르지도 않고 따로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일체의 물·불·바람과 파랑·노랑·빨강·하얀 것을 감각 기관으로 바로 받아 관찰한 뒤에는 ‘지어감은 곧 <나>요, <나>는 곧 지어감이다. 그것들은 오직 하나요 둘이 없으며, 다르지도 않고 따로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일체의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낱낱이 <나>라고 헤아리나니 이것이 ‘물질은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물질은 나와 다르다’고 보는가. 만일 그가 느낌은 곧 <나>라고 보고, 느낌을 곧 <나>라고 본 뒤에는, 물질은 곧 <내 것>이라고 보며, 혹은 생각·지어감·의식은 곧 <나>라고 보아 물질은 곧 <내 것>이라고 본다.

어떻게 <나> 안에 물질이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느낌은 곧 <나>라고 보아 물질은 <나> 안에 있다고 보며, 혹은 생각·지어감·의식을 곧 <나>라고 보아 물질은 <나>안에 있다고 본다. 어떻게 물질 속에 <나>가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느낌은 곧 <나>로서 물질 안에 머무르고, 물질에 들어가 온 몸에 두루 한다고 보며, 생각·지어감·의식은 곧 <나>로서 물질 안에 머물러 온 몸에 두루한다고 본다. 이것이 물질 안에 <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느낌을 곧 <나>다’라고 보는가. 이른바 여섯 가지 받아들이는 몸이니 눈으로 부딪쳐 느낌이 생기고, 귀·코·혀·몸·뜻으로 부딪쳐 느낌이 생긴다. 이 여섯 가지 받아들이는 몸의 하나하나를 곧 <나>요, <나>는 곧 느낌이라고 보나니 이것이 ‘느낌은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느낌은 곧 나와 다르다’고 보는가. 이른바 물질을 곧 <나>라고 보아 느낌은 곧 <내 것>이라고 보며, 생각·지어감·의식을 곧 <나>라고 보아 느낌을 <내 것>이라고 보나니 이것이 ‘느낌은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나> 안에 느낌이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물질은 곧 <나>라고 보아 느낌은 그 안에 있다고 보며, 생각·지어감·의식은 곧 <나>라고 보아 느낌은 그 안에 있다고 보나니 이것이 ‘<나> 안에 느낌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느낌 속에 <나>가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물질은 곧 <나>로서 느낌 안에 머물러 온 몸에 두루 한다고 보며, 생각·지어감·의식은 곧 <나>로서,

느낌 안에 머물러 온 몸에 두루 한다고 보나니 이것이 ‘느낌 속에 <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은 곧 <나>다’라고 보는가. 이른바 여섯 가지 생각하는 몸이니 눈으로 부딪쳐 생각이 생기고, 귀·코·혀·몸·뜻으로 부딪쳐 생각이 생긴다. 이 여섯가지 생각하는 몸의 하나하나를 곧 <나>라고 보나니 이 것이 ‘생각은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은 나와 다르다’고 보는가. 이른바 물질을 곧 <나>라고 보아 생각은 곧 <내 것>이라 보며, 의식은 곧 <나>라고 보아 생각은 곧 <내 것>이라고 보나니, 이것이 생각은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나> 안에 생각이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물질을 곧 <나>로서 생각은 그 안에 머무르며, 느낌·지어감·의식은 곧 <나>로서 생각은 그 안에 머무른다고 보나니, 어떻게 생각 안에 <나>가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물질을 곧 <나>로서 생각 안에 머물러 온 몸에 두루 한다고 보나니, 이것이 ‘생각 속에 <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지어감은 곧 <나>다’라고 보는가. 이른바 여섯 가지 생각하는 몸이니, 눈으로 부딪쳐 지어감이 생기고, 귀·코·혀·몸·뜻으로 부딪쳐 지어감이 생긴다. 이 여섯 가지 몸의 하나하나를 곧 <나>라고 보나니 이것이 ‘지어감은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지어감은 곧 나와 다르다’고 보는가. 이른바 물질을 곧 <나>라고 보아 지어감은 곧 <내 것>이라고 보며, 느낌·생각·의식을 곧 <나>라고 보아 지어감은 곧 <내 것>이라고 보나니 이것이 ‘지어감은 곧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나> 안에 지어감이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물질을 곧 <나>로서 지어감은 그 안에 머무른다고 보며,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을 곧 <나>라고 보아 지어감은 그 안에 머무른다고 보나니 이것이 ‘<나> 속에 지어감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지어감 안에 <나>가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물질을 곧 <나>로서 지어감 안에 머물러 온 몸에 두루한다고 보며, 이른바 느낌·생각·의식은 곧 <나>로서 지어감 안에 머물러 온 몸에 두루한다고 보나니 이것이 ‘지어감 속에 <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의식은 곧 <나>다’라고 보는가. 이른바 여섯 가지 의식하는 몸이니, 눈의 의식과 귀·코·혀·몸·뜻의 의식하는 몸이다. 이 여섯 가지 의식하는 몸의 하나하나를 곧 <나>라고 보나니 이것이 ‘의식은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의식은 나와 다르다’고 보는가. 이른바 물질을 곧 <나>라고 보아 의식은 곧 <내 것>이라고 보며, 느낌·생각·지어감을 곧 <나>라고 보아 의식은 곧 <내 것>이라고 보나니, 이것이 ‘의식은 곧 나와 다르다’라

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나> 안에 느낌이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물질을 곧 <나>라고 보아 의식은 그 속에 머무른다고 보면, 느낌·생각·지어감을 곧 <나>라고 보아 의식은 그 안에 머무른다고 보나니, 이것이 ‘<나>안에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의식 속에 <나>가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물질은 곧 <나>로서 의식 안에 머물러 온 몸에 두루 한다고 보며, 느낌·생각·지어감은 곧 <나>로서 의식 속에 머물러 온 몸에 두루 한다고 보나니 이것이 ‘의식 안에 <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거룩한 제자들은 네 가지 진리를 보아 완전히 평등한 지혜를 얻고 모든 샛된 소견을 끊어 미래에도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느니라. 모든 물질로써 과거거나 미래거나 현재거나 안이거나 밖이거나 굽거나 가늘거나 좋거나 더럽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그것은 한결같이 쌓이고 모인 것이라 보고, 이렇게 관찰한다. 즉 ‘일체는 덧없다. 일체는 괴롭다. 일체는 공이다. 일체는 <나>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랑하고 즐거하여 거두어 받아들이거나, 보호하여 가지지 않아야 한다.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것을 사랑하고 즐거하여 거두어 받아들이거나, 보호하여 가지지 않아야 한다’고 이렇게 관찰한 뒤에는 마음을 잘 잡아매어 지혜에 머무르며, 법을 다시 관찰하고 정진하여 모든 게으른 마음을 떠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 몸과 마음이 고요히 쉬게 된다. 그래서 고요함과 버림에 머무르면서, 모두 도품(道品)을 갖추고 수행이 만족하여 길이 모든 악을 여의느니라. 태우지 않은 것이 없고 멸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멸해서 일어나지 않고, 감해서 더하지 않으며, 끊어서 나지 않고, 나지도 않고 취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열반을 깨달아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다시는 후생 몸을 받지 않을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사리불이 이 법을 말하자 60명의 비구들은 모든 번뇌를 받지 않고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